

정의선-송창현, '모빌리티 파괴적 혁신' 위해 맞손

〈현대차 수석부회장〉

〈前 네이버 CTO 출신〉

현대자동차, '코드42'에 전략 투자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전환 가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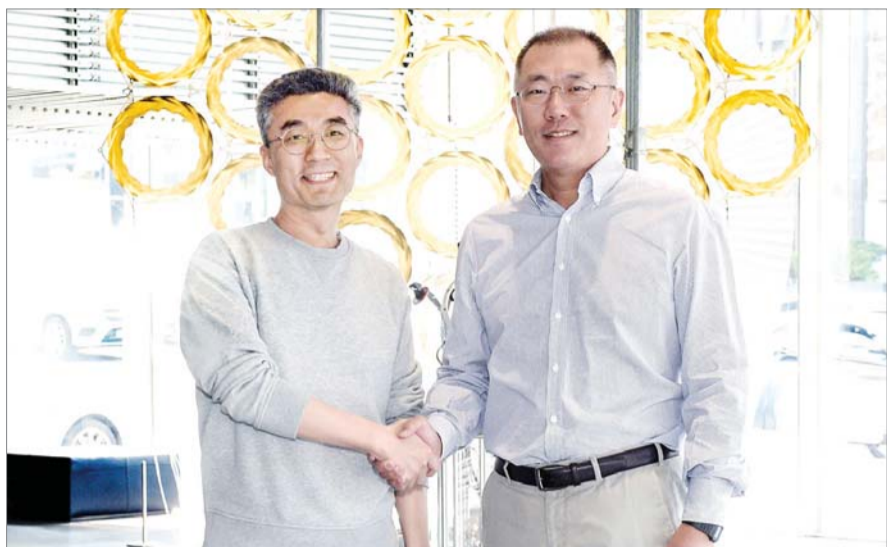
차세대 서비스 플랫폼 개발 협력
미래 모빌리티 시대 안에서 제작

현대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내 최고 기술진들과 손 잡고 미래 혁신 성장 분야 첨단 기술 선점에 나선다.

현대차는 네이버 CTO 출신 송창현 대표가 설립한 스타트업 '코드42'에 전략 투자하고 상호 다각적인 협력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현대차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공표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의 전환에 가속도를 더하고,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는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특히 양사 간 협력은 미래 첨단 기술 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오른쪽)과 코드42 송창현 대표가 논현동에 위치한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만나 의견을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혁신 산업 전반의 위상 강화와 고도화를 견인하게 될 전망이다.

코드 42를 이끌고 있는 송 대표는 로봇과 자율주행 등 네이버의 신산업을 이끌던 핵심 인력이었다. 이 회사의 구성원들은 이미 음성인식, AI, 모빌리

티, 자율주행, 네이버 지도, 정밀 지도, 로보틱스, 컴퓨터 비전, 빅데이터 등 혁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왔다.

코드42는 올해 말까지 100여명으로 기

술 인력을 보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우수인재 확보를 통해 2021년에는 300여명의 구성원을 둔 대한민국 대표 기술 중심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 수석부회장과 송 대표는 최근 논현동에 위치한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트렌드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드 42의 통찰력, 서비스 플랫폼 운영 경험은 현대차가 추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현대차의 전략적 투자를 계기 삼아 다가올 모빌리티 시대를 위한 안내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코드42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 특히 관련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통합 플랫폼 '유모스'를 접목하는 등 다방

면에서 손잡는다. '유모스'는 쇼핑과 빠른 배송, 다양한 교통·이동수단 등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차세대 서비스 플랫폼이다.

즉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 배달 로봇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이동수단을 하나로 통합해 차량 호출, 카 셰어링, 로보 택시, 스마트 물류, 음식 배달 등 각각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도시가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될 스마트시티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는 단순히 기술적인 협업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은 위치에서 머리를 맞대는 만큼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전 세계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17년 388억달러에서 2025년 3584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유럽 친환경 상용차 시장 공략

스위스 H2 에너지와 합작법인 설립

현대자동차가 스위스 수소 에너지 기업인 'H2 에너지(H2E)'와 합작법을 설립한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현대차는 1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H2 에너지와 합작법인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 설립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부사장)과 볼프 후버 H2 에너지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2E는 수소 생산·공급 솔루션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소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이동성 확보와 전국 수소 충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2018년 5월 출범한 '스위스 수소 모빌리티 협회'의 사업개발 및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현대차는 수소전기 상용차로 유럽 각 국가별 친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오른쪽), 스위스 H2 에너지 볼프 후버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고, 향후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 등 다른 국가로의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합작법인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에 7년간 총 1600대의 대형 수소전기 트럭을 공급한다. 또 합작법인은 스위스 수소 모빌리티 협회를 통해 리스 등 여러 사업을 검토하게 된다. 스위스는 3.5t 이상 상용차에 대해 도로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2020년형 'K9' 출시

고객 편의사양 확대 적용

내비게이션 자동 업데이트
판매가 5419만~9179만원

기아자동차가 첨단 사양을 적용한 K9의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 고급 대형 세단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기아차는 지난해 4월 주행성능과 디자인 등에 완벽한 변화를 준 플래그십 세단인 K9인 출시하고 고급 대형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K9은 출시와 동시에 연간 판매량 1만대 고지를 넘어선 모델이다.

이에 기아차는 15일 첨단 편의 사양을 강화한 플래그십 세단 2020년형 K9을 출시했다. 연식 변경을 거친 K9은 내



비게이션 무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이에 주행 도중 차량이 스스로 지도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한다. 이와 함께 터널 진입 시 자동으로 창문을 닫고 공조 기능으로 전환하는 제동 제어 사양,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등을 확대 적용한 게 특징이다.

외관은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과 앞뒤 범퍼, 옆면 가니쉬(장식물) 등에 유광 크롬 소재를 더했다. 입체적 형상의 그릴, 19인치 전용 휠 등으로 차별화를 둔 '스포티 컬렉션'도 새로 마련했다. 실내 공간은 은은한 빛으로 분위기를 살리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조명 밝기 및 범위를 개선하고 시트 색감을 높였다.

판매 가격은 트림별로 5419만~9179만원이다.

한편 기아차는 2020년형 K9의 출시와 K9 브랜드 런칭 1주년을 기념해 프리미엄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형 K9 시승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제주 해비치 호텔 숙박권과 K9 시승차 대여 혜택을, 기존 K9 구매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강릉 씨마크 호텔의 숙박권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LG 트롬 건조기 후기 '백일장' 연다

LG전자, 내달 3일까지 응모
선정 작품은 TV 광고로 송출

LG전자가 트롬 건조기 후기 '백일장'을 연다. 선정된 작품은 TV 광고로 송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트롬 건조기 후기 백일장'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선정된 작품은 TV 광고로 송출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트롬건조는 사랑입니다'나 '#LG트롬건조기'가 붙은 글이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트롬 건조기 사용 후기를 받는 내용이다.

참여 고객은 추첨을 통해 트롬 스타일러 1대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200개 등 참여상을 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트롬 건조기 후기를 응모받아 TV 광고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전자

LG전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TV 광고로 제작해 방송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LG U+, AI 활용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앱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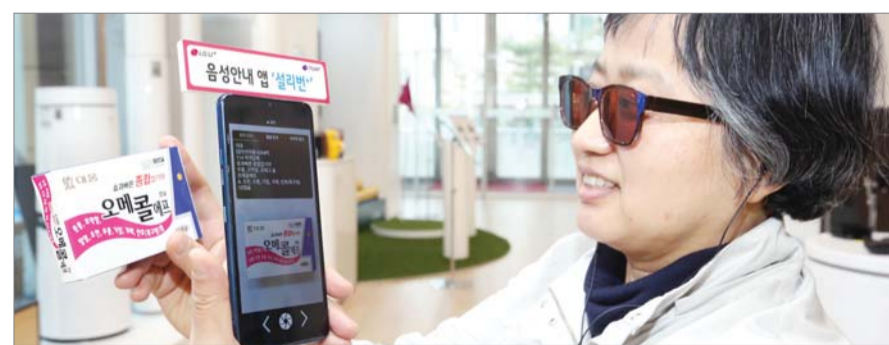
투아트와 '설리번+' 개발·서비스
LGU+ 고객 연말까지 데이터 무료

LG유플러스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사회적약자를 위해 앱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투아트와 함께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눈' 시각보조 애플리케이션(앱) '설리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리번+는 투아트가 개발하고, LG유플러스가 시각장애인 대상 고객 조사, 마케팅, 기술자문, 모바일 접근성 개선 등을 지원했다.

설리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앱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정확한 시각정보를 제공하



시각장애인이 촬영한 문자를 읽어주는 '문자인식'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기 위해 인식된 이미지와 주요단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최적의 문장을 조합하는 이미지 캡셔닝 기술도 적용됐다.

예를 들어 설리번+ 앱으로 탁자에 놓여진 펜을 촬영하면 '탁자, 위, 펜'과 같은 사물 관련 주요 단어를 종합해 '탁자 위에 펜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준다.

인식한 문자를 읽어주는 문자인식, 촬영된 인물의 나이와 성별을 추측해 알려주는 얼굴인식, 주변 장면 묘사하

는 이미지 묘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은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설리번+는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 고객에게는 데이터 걱정 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데이터 무료' 혜택도 제공한다. /김민인 기자 silkni@